

중앙과 지역이 함께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왜 필요한가?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은 새삼 언급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미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어 있다. 이는 국민들이 정부에 기대하는 최우선 과제이기도 하다. 그간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상당부분 결실을 맺고 있고 있기도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통일된, 또는 획일적인 정책만으로는 지역의 다양한 일자리문제를 맞춤형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중앙과 지방이 소통하면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2006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그 핵심적인 사업이다.

「패션의 메카 동대문시장을 이끌 봉제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창출(서울특별시)」, 「향토 자원인 편백나무를 활용, 아토피 치유 및 재활 관련 일자리 창출(전남 장흥군)」, 「안동, 경주 지역의 전통 문화를 일자리로 연계한 문화적 일자리창출(경상북도)」, 이 사업들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새로운 일자리를 추진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각 지역의 고용여건이 다르다면 그에 맞춰 일자리대책도 달리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이 점에 착안한 사업이 바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다. 지역의 자치단체와 고용부 고용센터를 필두로 노동계, 사용자단체, 사회단체, 대학, 연구기관 등이 지역민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새롭게 생성된 일자리에 취업시켜 지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존재 이유이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종류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공모방식에 따라 시도간 경쟁사업과 시도내 경쟁사업으로 나뉜다. 시도간 경쟁사업은 광역자치단체간의 경쟁방식으로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공모·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이며, 시도내 경쟁사업은 광역자치단체 내의 기초자치단체간의 경쟁을 통해 선정하는 방식이다.

사업내용에 따라 포럼사업, 연구사업, 특화사업, 패키지사업으로 나뉜다. 포럼사업은 지역내 고용 관련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하여 지역의 고용이슈를 발굴 및 공론화시키고 지역민의 고용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연구사업은 지역차원의 고용문제에 대한 실태분석과 대안제시 등을 위한 지역별 연구사업이다. 특화사업은 지역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 능력개발 등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다.

패키지사업은 특화사업과 연구사업이나 포럼사업이 결합된 사업이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평가, 컨설팅, 교육, 정보지 발간, 정보 네트워크 운영 등을 지원하는 지역고용 인프라확충 사업이 있다.

7년차를 맞이한 사업의 성과와 한계는?

2006년부터 실시해 온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이제 7년차를 맞이하였다. 그간 본 사업이 얻은 성과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지역특성에 기반을 둔 다양한 지역밀착형 사업 발굴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의 중앙정부 주도 고용·인적자원개발 정책으로는 착안하기 힘든 지역밀착형 사업이 발굴되어 지역 고용문제 해소에 기여했다는 점이다. 둘째,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과 능력개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고용관련 주체와 전문가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해 온 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의 고용관련 전문가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로 지역 고용·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지역 여론 형성에 기여하였으며, 자치단체의 연계활동도 강화해 왔다. 셋째, 지역 고용주체들의 사업수행 역량 향상을 들 수 있다. 중앙에서 지침을 받아 수동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에서 직접 필요한 사업을 구상하고 운영하는 능력을 배양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지역에서 고용창출과 인적자원 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관이 제한되어 있고, 지역의 고용여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하여 지속적으로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2012년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2012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일자리공시제와의 연계강화이다. 지역 일자리공시제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 인센티브 차원에서 별도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지역고용포럼의 역할 강화이다. 광역 자치단체별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지역고용포럼을 상호 교류의 장으로 운영하여 지역내 고용 이슈를 공유하여 지역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셋째,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 공모 시기를 앞당겼다. '11년도 말 공모를 실시하여 '12년 1월에 선정 및 약정체결 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개선된 내용을 바탕으로, 2012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을 236개 선정하였으며 이 사업들을 통해 약 9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고용노동부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특성을 살린 일자리창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여 지역이 안고 있는 고용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하며, 특히 지역 일자리공시제와 연계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일자리사업을 키워 나가고자 한다. 

